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走遍韩国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3 辅导
用书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走遍韩国

韩国 新罗大学 合著
中国 对外经济贸易大学

3 辅导用书

[지도상 유의점]

1. 교사는 글을 쓰는 시작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를 지도한다.
2. 교사는 쓰기 활동이 다른 언어활동에 비해 학습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음을 인지하여 충분한 시간(080001)을 할당한다.

III. 단원 마무리

1. 교사는 단원에서 학습한 주요 어휘, 표현, 문법을 정리하여 설명한다.
 2. 교사는 학습자에게 모둠별로 나라가 중립되지 않도록 나라 이름에 대해 찾아오게 한다.
- 이때, 교사는 모둠별로 나라가 중립되지 않도록 나라 이름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北京

图书在版编目(CIP)数据

走遍韩国. 3: 辅导用书 / 韩国新罗大学, 中国对外经济贸易大学著. — 北京: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7

(外研社 走遍韩国系列丛书)

ISBN 978-7-5600-6760-5

I. 走… II. ①韩… ②中… III. 朝鲜语—教学参考资料 IV. H55

中国版本图书馆 CIP 数据核字 (2007) 第 094378 号

出 版 人: 于春迟

责任编辑: 陈佑伟

封面设计: 孙莉明

出版发行: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社 址: 北京市西三环北路 19 号 (100089)

网 址: <http://www.fltrp.com>

印 刷: 北京双青印刷厂

开 本: 787×1092 1/16

印 张: 21.5 活页 3.25

版 次: 2007 年 8 月第 1 版 2007 年 8 月第 1 次印刷

书 号: ISBN 978-7-5600-6760-5

定 价: 34.90 元

* * *

如有印刷、装订质量问题出版社负责调换

制售盗版必究 举报查实奖励

版权保护办公室举报电话: (010)88817519

编委会成员

主 编 李埰衍 (韩)(韩国 新罗大学)

副主编 徐永彬 (对外经济贸易大学)
崔顺姬 (北京语言大学)

编 者	李埰衍 (韩)	
	徐永彬	崔顺姬
	金罗娟 (韩)	申恩琼 (韩)
	赵贞顺 (韩)	金昌九 (韩)
	高广道 (韩)	金贵和 (韩)
	裴贤淑 (韩)	孙惠贞 (韩)
	车度铉 (韩)	

出版说明

随着中韩两国在政治、经济、文化等领域的交流日益频繁，近年来在中国国内掀起了一股学习韩国语的热潮。虽然中韩两国的教授和学者为满足广大韩国语学习者的需要编写了大量的教材，但这些教材都没能配有辅导用书，既不方便教师教学，也不方便学生课后自学。因此，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与韩国的新罗大学 and 中国的对外经济贸易大学共同出版了“走遍韩国”系列丛书的配套辅导用书。本套辅导用书由中韩两国的多位教授共同编著，具有如下几大特色：

1. 为韩国语教师提供了很多实践性强的教学方法，对教师的教学有极大的指导意义。辅导用书明确每一单元的教学目的和教学进程，分析教学重点和难点，提出详细而具体的教学建议，帮助教师有的放矢地安排教学。

2. 配套的辅导用书对相应的学生用书中的单词和语法点做了详尽说明，对课后练习给予了详细的指导，并根据学生用书中的知识点进行了适当的拓展，补充了很多课外辅导材料，使韩国语学习不仅局限于书本，还更多地与现实生活中的实际场景相结合，有助于学生掌握实用而又丰富的韩国语。

3. 考虑到不同层次韩国语学习者的需要，我们将《走遍韩国》学生用书1-4册中的听力、对话、课文内容和译文做成小册子夹在辅导用书中，以方便学生的查阅。

“走遍韩国”系列丛书的配套辅导用书凝聚了中韩两国众多教授的教学经验和心得，既能够帮助教师在设计教学方案时对教学目标有一个清醒的认识，又能够为学生的学习提供服务 and 帮助。我们衷心希望“走遍韩国”系列丛书的出版能够对广大韩国语教师 and 学习者有所裨益。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2007年7月

목 차

제1과 경제	1
(1) 결혼과 경제	1
(2) 깨끗한 돈	18
(3) 깨끗한 경제인	26
(4) 알뜰 경제	37
제2과 직업	46
(1) 새로운 직업	46
(2) 첫 월급 선물	61
(3) 명함 주고받는 법	70
(4) 주부에서 직장인으로	79
제3과 건강 지키기	87
(1) 불쾌지수	87
(2) 감기를 치료하기 위한 세계의 민간요법	98
(3) 나의 피로 지수	105
(4) 축복받은 사람	115
제4과 여가 생활	123
(1) 등산 준비는 이렇게	123
(2) 달리기 100배 즐기기	132
(3) 앉아서 하는 스트레칭	140
(4) 한국 사람들의 여가 생활	148
제5과 맛의 세계	156
(1) 음식 재료 잘 고르는 법	156
(2) 음식 만들 때 필요한 주방 도구	167
(3) 배추김치 담그기	172
(4) 맛있는 집: 삼청동 수제비	180
제6과 대중문화 즐기기	189
(1) 마술, 그 예술적 눈속임	189
(2) 좋은 관객이 좋은 공연을 만든다	202
(3) 공연·전시 안내	209
(4) 부산국제영화제	217

제7과 사랑	226
(1)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귀엽다_어머니의 사랑	226
(2) 춘향전_연인의 사랑	238
(3) 내가 먼저_이웃 사랑	244
(4)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_아버지의 사랑	255
제8과 자연	264
(1) 쓰레기 분리수거	264
(2) 민들레꽃	274
(3) 나무와 샘물	281
(4) 공기를 맑게 해 주는 식물들	290
제9과 세계의 이모저모	298
(1) 어른이 되는 길	298
(2) 이렇게 산다	308
(3) 맛있는 게 최고야	316
(4) 우리 함께 즐겨요	325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제1과 경제

(1) 결혼과 경제

I. 단원의 학습 목표

- 주제 - 결혼의 득과 실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코익공생]
- 기능 - 결혼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단언하여 말할 수 있다. [코익공생]
- 어휘 - 돈의 사용과 관련된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다. [코익공생]
접사 '-적(的)'을 사용해 어휘를 확장할 수 있다. [코익공생]
어휘의 비유적 의미를 적절히 구사할 수 있다. [코익공생]
- 문법 - 평서문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다. [코익공생]
반어의문문을 사용해 주장을 강조할 수 있다. [코익공생]
용언과 공기제약을 이루는 격조사를 정확히 구사할 수 있다. [코익공생]

II. 그룹 활동 및 지도

도입

- 여러분은 어떤 취향입니까?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시하십시오. [코익공생]
☐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코익공생]
☐ 분명한 수입이 있다. [코익공생]
☐ 자신을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편이다. [코익공생]
☐ 심심할 때 전화 한 통만으로 불러 낼 친구가 있다. [코익공생]
☐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주저하지 않고 산다. [코익공생]
☐ 취미생활을 즐긴다. [코익공생]
☐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있다. [코익공생]
-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위의 결과를 보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십시오. (4~5개는 독신 취향) [코익공생]
-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코익공생]

☐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는 것일까요?

☐ 결혼을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길래 짝 구하기가 힘든 농촌 총각들은 외국에까지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일까요?

☐ 결혼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의 편익과 비용을 같이 한 번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4. 학습자들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결혼의 득에 관해 쓴 글임을 상기하면서 글을 읽어 보자고 읽기로 안내한다.

[활동지도]

1. 도입 3에 대해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2. 교사의 주도하에 서로 다른 견해를 들어 본다.
3. 학습자들의 두 견해를 교사는 칠판에 간단하게 판서한다.
4. 교사는 학습자의 발화 중 교재의 내용과 가장 근접한 것을 부각시켜 판서한다.
5. 이야기를 정리하고 교재의 내용으로 안내한다.

[지도상 유의점]

1. 학생의 발화에서 문법이나 발음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엄격한 교정은 피한다.
2. 도입 1은 취향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소비하지 않는다.
3. ‘경제적 관점에서’라는 범위에 이야기를 국한시킨다.

어휘 및 표현

어휘 1) 절약하다, 들이다, 도저히, 충분하다

어휘 2) -적(的): 경제적, 효과적, 대표적, 개인적, 사회적

- (으)ㄴ직하다 (= -직스럽다): 바람직하다, 믿음직하다, 먹음직하다

어휘 3) 들다, 돌리다, 이해(짐작, 판단, 의심, 믿음, 납득)이/가 가다 (=되다)

[활동지도]

1. 제시된 중요 단어들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익힌다. 이때 중국어를 통해서 정확한 뜻을, 그리고 예문을 통해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게 한다. 이와 함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하게 한다. 필요한 경우 어휘 확장을 피할 수 있다.
2. 학습자들에게 구두로 어휘를 파세시켜 보게 한 후 그 적절성이나 사용 빈도에 따라 필요한 것은 파서한 후 설명한다.
3. 어휘 1
(1) ‘절약하다’는 의미 지도 후 어휘 확장을 통해 의미에 익숙하게 한다. 아울러 발음 ([저랴카다])도 지도한다.

예) 물자 절약/에너지 절약/절약 정신/절약이 몸에 배다.

- (2) ‘충분하다’는 의미와 함께 주로 조사 ‘-으로’나 명사형 어미에 조사 ‘-에’가 결합된 형태인 ‘-기에’나 가정형 어미 ‘-(으)면’이 선행하는 통사적 특징도 지도한다. 반의어도 지도한다.

예) 그 문제를 푸는 데 10분이면 충분하겠지?

그는 식구들이 살아가기에 충분한 재산을 모았다.

저는 밥 한 그릇으로 충분합니다.

부업은 필요 없어요. 월급으로 충분합니다.

- (3) ‘도저히’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이는 통사적 제약을 중심으로 예문을 제시한다.

예) 너의 말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있다.

- (4) ‘들이다’는 자동사 ‘들다’와 함께 쓰인 예문을 먼저 제시하고 ‘-에 -을/를 들이다’라는 문장 구조를 형성함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예) 아버지는 사업에 모든 노력을 들여서 지금과 같은 성공을 거두셨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엄청난 공을 들인다.

아내는 실내 장식에 많은 돈을 들였다.

4. 어휘 2

- (1) ‘-적(的)’은 ‘가급적/국가적/기술적/문화적/비교적/사교적/일반적/전국적’ 등 확장 가능 어휘를 먼저 제시해 준 후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성격을 띠는’, ‘그에 관계된’, ‘그 상태로 된’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임을 설명한다.

- (2) ‘-스럽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러한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임을 설명하고, ‘자연스럽다/걱정스럽다/자랑스럽다’ 등을 확장 어휘로 의미 설명과 함께 지도한다.

5. 어휘 3

의미 확장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지도한다.

- (1) ‘들다’는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다’(손을 들다, 고개를 들다) →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사실을 가져다 대다.’라는 순서로 설명한 후 예문을 제시한다. [들어, 드니, 드오] 등 활용 양상도 지도한다.

예) 보기를 들다/예를 들다/증거를 들다

- (2) ‘돌리다’는 자동사 ‘돌다’를 먼저 지도한다. 의미를 한자어로 설명하거나 그림을 이용해 지도한다.

예) 팽이가 돌다

→ 다음, 자동사 ‘돌리다’를 예문으로 지도한다.

예) 바퀴를 돌리다, 팽이를 돌리다, 문손잡이를 돌리다

→ 다음, ‘기계 따위를 움직이게 하다’라는 확장 의미를 지도한다.

예) 기계를 돌리다, 세탁기를 돌리다

- (3) ‘가다’에 대해서는 ‘공간적 이동’의 의미를 학습자들이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 ‘어떤 일에 대하여 납득이나 이해, 짐작 따위가 되다.’라는 추상적 의

미를 지도한다.

예) 바뀐 세상이 실감이 가니?

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

전후 사정이 대충 짐작이 가.

딱한 처지에 동정이 간다.

[지도상 유의점]

1. 명사에 한자어 ‘-적’이 결합될 때는 선행 명사가 한자어일 경우에만 정확한 한국어가 됨을 지적한다.
2. ‘-직하다’의 경우는 ‘-답-’, ‘-스럽-’과 변별한다.
3. ‘들다’의 경우 ‘먹다’의 높임말 ‘들다’와는 별도의 의미임을 주의시킨다.

문법

문법 익히기 1) 평서문 현재형

[문법 개요]

한 문장을 마치는 데는 문장 마침을 나타내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문장 마침을 나타내는 종결법은 서술어에 나타나는데, 용언 어간에다 종결형 어미를 붙여서 나타낸다. 일반적인 문장 서술을 나타내는 대표적 종결어미로서 격식체 중, 아주 높임을 나타내는 합시오체로는 ‘-(으)나다’를 쓰고 하계체로는 ‘-(으)네’, 반말체로는 ‘-는다’, 그리고 비격식체로는 ‘-아/어요’를 쓴다.

이 단원에서는 평서문 중에 일반적인 사실에 대한 서술을 나타내는 평서문의 현재형에 대해 공부한다.

[문법 설명]

1. 평서형 ‘-나다(-(-으)나다)’

(1) 사물의 성질이나 현재의 상태, 반복되는 동작이나 습관, 그리고 불변의 진리를 표현한다.

(2) ‘지금’이나 ‘오늘’ 등의 시간 부사어가 있으면 시제가 더욱 분명해진다.

(3) 발화시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라도 예정된 일이면 현재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 난 내일 아침 비행기로 떠난다.

3년 후에 중국에 돌아가요.

[활동 유형]

1.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자신의 확정된 미래에 대해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게 한다.

혹은 어떤 사태에 대해 단언하여 이야기하게 한다.

□ 내일 무엇을 합니까?

□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2. 학습자의 대답을 매개로 목표 문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쓰고 의미와 용법을 지도한다.

[지도상 유의점]

1. 자신감 있는 어조로 말하게 한다.
2. 학습자의 대답이 ‘-(으)ㄴ 겁니다’ 등 미래 의지의 표현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표현이 적절함을 알려 주고, 하지만 현재형을 사용함으로써 확실한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음을 지도한다.
3. 동사와 형용사에 따라 ‘다’와 ‘-(으)ㄴ다’를 구분해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2. 평서형 ‘-(으)ㄴ다’

공손한 격식체에 사용되는 종결어미다.

[활동 유형]

1. 동작 표현의 그림을 보여주고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무엇을 합니까?
2. 학생이 대답을 하면 칠판에 쓰고 읽어 준다.
□ 돈을 모읍니다. 돈을 씁니다.
3. 종결어미 ‘-습니다’, ‘-(으)ㄴ다’의 문법을 설명한다.
4. 단어 카드를 제시하면서 ‘-습니다’ 형태로 교체 연습을 한다.
5. 학습자들에게 서로의 동작이나 성격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한다.

[지도상 유의점]

이미 초급 단계에서 학습되었으므로 활용되는 동사의 수준을 높인다. 즉 동사는 중급 교재에 나온 것을 이용하고, 실생활에서 쓰이는 것들 중에 난이도가 높은 어휘를 선택한다. 그림 자료를 사용하면 어휘의 의미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다.

3. 평서형 ‘-아/어요’

(1) ‘-습니다’의 비격식체 표현이다. 서술형과 의문형은 발화시에 억양에 의해 구별된다.

(2) 상대적으로 친숙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용되는 어미이다.

[활동 유형]

1. 학습자들에게 이미 익숙한 표현인 ‘-습니다’와 ‘-아/어요’형의 문장을 동시에 제시한다.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 두 가지 형태가 있음을 암시한다.

2. 두 표현의 느낌이 어떤지 묻는다.
3. ‘-아/어요’를 포함한 비격식체 어미의 의미를 설명한다.
4. 비격식체의 경우 명령형과 서술형의 의미가 같다는 것과 억양에 의해 구분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5. 문장을 써서 설명하고 2~3회 읽힌다.
6. 형태와 의미를 이해했는지 ‘-아/어요’형을 써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음으로써 확인한다.
7. ‘요즘 생활’을 주제로 짝 활동을 시킨다. 교사는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활동을 확인한다.

예시 답안

1. 생략.
2. 한 학생이 누워 있습니다(있다/있어요). 뒤에서 세 명의 학생이 운동을 합니다(한다/해요). 두 학생은 베드민턴을 칩니다(칩니다/쳐요). 또 한 학생은 줄넘기를 합니다(한다/해요). 자전거를 타고 뒤를 돌아보며 가는 학생도 있습니다(있다/있어요). 그 뒤를 따라가는 여자는 친구인가 봅니다(인가 보다/인가 봐요). 한 아기 엄마와 아기가 산책을 합니다(한다/해요). 데이트를 하는 남녀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있다/있어요).

문법 익히기 2) 기타 문법 및 표현

[문법 개요]

본문에서 나온 표현이나 문법 중 본문의 이해에 필요한 것을 지도한다. 새로운 표현이나 난이도가 높은 것이 지도된다. 이와 함께 실제 언어생활에서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연스런 담화 상황을 제시한다.

[문법 설명]

1. -에 의하면

[문법 설명]

1. 주로 조사 ‘-에’와 연결되어 ‘의한’, ‘의하면’, ‘의하여’ 형태로 쓰인다.
2. ‘무엇에 의거하거나 기초하다.’ 또는 ‘무엇으로 말미암다.’의 의미이다.
3.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인용 논거를 이끌어 올 때 사용한다.

[활동 유형]

1.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요즘 새로 알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2. 학습자들의 대답을 칠판에 ‘알게 된 내용’ 과 ‘알게 된 방법’ 으로 나누어 필기한다.

☐ 알게 된 방법

일기예보

소문

통계

☐ 알게 된 내용

비가 온다.

수잔 씨가 남자친구를 사귄다.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3. 칠판에 쓴 표를 보고 완성된 문장을 판서한다.

☐ 일기예보에 의하면 내일 비가 온다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4. 학습자를 지명하여 칠판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발화하게 한다.

5. 다른 학습자를 지명하여, 요즘 학급에서 새로이 들리는 이야기를 매개로 문형을 활용하여 말하게 한다.

6. ‘-에 의하면’ 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마무리한다.

[지도상 유의점]

1. 학습자들의 대답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교사가 미리 칠판에 쓸 내용을 표로 만들어 채우게 한 다음 진행할 수도 있다.

2.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인용의 ‘-다고 한다’ 와 같이 사용하도록 지도한다.

2. -다고/라고 하다

[문법 설명]

1. 서술문을 인용하거나 전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2. 선행절의 의미에 따라 ‘-자고 하다’, ‘-냐고 하다’ 등으로 쓰인다.

3. 선행절의 시제와 절의 시제가 과거일 경우, 선행절, 후행절 모두에 과거시제 선언 말 어미를 사용한다.

[활동 유형]

1. 교사가 학습자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도록 한다.

☐ -씨는 어디에서 왔어요.

☐ -씨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2. 학습자의 대답을 ‘-다고 합니다’ 형태로 바꾸어 칠판에 쓰고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3. 판서된 예문을 이용하여 의미를 설명하고 선·후행절 시제와 후행 용언의 성격에 따라 형태가 변함을 설명 한다.

[지도상 유의점]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의 간접화법 전체를 지도할 수 있다.

3. 아무리 -아/어도

[문법 설명]

- 어떤 사실을 가정하거나 인정해도 뒤의 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나타낸다.
- ‘아무리’를 첨가하여 의미를 강조한다.

[활동 유형]

- 교사는 자신이 상당히 노력했던 과거의 경험, 혹은 다른 사람이 노력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경우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학습자들에게 질문한다.
☐ 여자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약속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어요. 지금 가서 만날 수 있을까요?
- 학습자들이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 다음과 질문한다.
☐ 빨리 뛰어가면 될까요?
택시를 타고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 학습자들의 반응을 매개로 ‘-아/어도’의 형태로 문장을 만들어 판서한다.
- 의미와 기능을 설명한다.
-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루기 불가능한 것을 말하게 한다.
☐ 시간이 없다.
☐ 날씨가 춥다.
☐ 한국어를 모르다.

[지도상 유의점]

경험을 이야기하는 경우 문법적 의미나 기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4. -(으)ㄴ 데(에)

[문법 설명]

- ‘그 동작을 하거나 한 경우에’의 의미를 나타낸다.
- 보통 ‘-데’는 의존명사로 그 앞에 반드시 관형사형이 선행한다.

[활동 유형]

- 학습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결혼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 외국 여행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2. 학습자들의 대답을 매개로 ‘-는 데에’를 사용해 문장을 만들어 판서한다.
 - ☐ 결혼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합니다.
 - ☐ 해외여행을 하는 데에는 여권이 필요합니다.
3. ‘-(으)ㄴ 데에’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하고, 시제에 따른 변화를 설명한다.
4. 교재에서 목표 문법이 있는 문장을 찾게 하여, 질문과 대답을 통해 문장의 의미를 이해시킨다.
5.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제시된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묻고 답하게 한다.
 - ☐ 친구와 화해하려고 한다.
 - ☐ 외국으로 유학 가려는 친구에게 조언을 하려고 한다. 필요한 것을 조언하라.

[지도상 유의점]

1. 어미 ‘-는데’와 변별하여 지도한다.
2. 수준이 낮은 학습자의 경우 ‘장소’를 나타내는 ‘-데’를 먼저 설명한 후 지도한다.

5. -을 통하여

[문법 설명]

1. 조사 ‘-을’과 함께 ‘통하여’, ‘통해’, ‘통해서’의 형태로 쓰인다.
2. 어떤 것을 알게 된 ‘경로’나 ‘방법’을 이야기할 때 사용한다.

[활동 유형]

1. ‘통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지도한다.
2.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매개로 한다.’ → ‘어떤 과정이나 경험을 거친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문을 제시하고 문장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다.
 - ☐ 그 시상식은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 실습을 통해 이론을 익히다.
 -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3. 학습자들에게 최근 새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질문한 후, 그것을 안 경우에 대해서도 질문한다.
4. 학습자의 대답을 매개로 용법을 설명한다.

6. -나

[문법 설명]

1. 주로 상대적인 뜻을 가진 두 체언의 조사 결합형이나 두 용언이 ‘-나 -나’ 형태로 쓰여 ‘언제든지’, ‘항상’의 뜻을 나타낸다.

2. (반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3. 맨 뒤에 나열되는 말에는 붙지 않을 때도 있다.

예) 예나 이제나 그는 변한 게 없다.
 그런 걸 아무에게나 물어볼 수는 없잖아?

[활동 유형]

1. 초급이나 중급에서 배우 명사 뒤에 쓰이는 ‘선택’의 ‘-나’를 상기시킨다.

예) 밥이나 빵을 먹습니다.

2. ‘-나’가 체언 뒤가 아닌 좀 더 복잡한 체언결합형으로 쓰이는 예와 용언 뒤에 결합되어 쓰이는 문장을 제시해 준다.

□ 집에서나 학교에서 늘 공부만 한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회사를 결근하는 날은 없었다.

3. ‘-나’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한다.

[지도상 유의점]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 쓰일 경우 주로 부사격 조사 뒤에 쓰임을 설명한다.

7. -지 않겠습니까?(반어의문문)

[문법 설명]

1. 형식은 의문문이지만 질문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강한 서술을 나타내기 위하여 의문문의 형식을 쓰는 경우이다.

2. 강한 표현이기 때문에 공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그렇게 할 일이 없니?

아는 사람이라면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활동 유형]

1. 의미와 기능에 대해 교사가 설명한다.

2.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의문사’를 포함한 문장은 강한 서술을 더 강조하는 기능을 나타남을 설명한다.

8. -(으)로 볼 때

[문법 설명]

앞의 내용이 판단의 기준 또는 근거가 되어 어떤 내용을 추측하거나 주장할 때 쓴다.